

- 본문 : 창세기 13장 1~13절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- 제목 : “아브람의 신앙과 롯의 신앙”

· 본문 읽기

-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
-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
-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
-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
-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
-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
-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
-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
-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
-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
-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
-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
-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

· 마음의 문을 열며

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잘 나오고, 헌금생활을 잘 하고, 봉사를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‘신앙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창조주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.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아무리 잘 감당한다고 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.

· 도입질문

- \* 나 스스로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다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면서 발견하게 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?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나누어봅시다.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1. 아브람이 애굽에서 떠나 다시 이동한 땅은 어디입니까? 그리고 아브람 일행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? (창13:1~4)
2.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 두 사람의 신앙 가치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(창13:10)

· 느낀 점

3. 말씀에 사로잡힌 아브람이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?

· 적용

4. 주변에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음에도 상관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? 이들을 품기 위한 결단의 방법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.